언어 정보 공유의 계기가 되길

이 기 용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언어정보연구소 소장)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 중인 "종합국어대사전"은 지역과 시간을 초월하여 한민족 모두가, 그리고 국어를 사랑하는 모든 이가 애용할 수 있는 사전이기를 많은 사람이 바랄 것이다. 서울 사람, 제주도 사람, 평양 사람, 함경도 사람, 연변, 오사카,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이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울 중심으로 정의된 표준어라는 경직된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 한민족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은 물론이겠지만,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특이하게 사용되어 온 각 지역의 아름다운 언어 표현들도 귀중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각 지역의 특유한 표현들을 사투리란 한 마디로 박대하고 방언이란 딱지를 붙여 비속어처럼 천시하는 것은 서울 아전들이 양반 행세하던 구세대의 유물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방언의 특수한 표현들이 각 지역의 토산물처럼 값지게 취급된다면 우리말은 그 표현력이 더욱 풍부해 질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편찬되는 "종합국어대사전"은 사라져 가는 산골이나 벽촌의 말마디 하나하나를 수집하여 그 출처를 밝히고 소위 표준어와 동등한 위치에 수록함으로써 사전 제목 그대로 종합적인 사전이 되기를 바란다.

둘째로 이 사전은 우리의 국어 생활을 다양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국어 생활의 환경 그 자체를 이루기 바란다. 언어는 그 소리가 바탕이 되므로 발음에 대한 정보가 자세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값어치'가 [가버치]로 발음되는지 [갑서치]로 발음되는지는 흔히 발음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부엌에'란 표현이 [부

어케]로 발음되는지 [부어게]로 발음되는지에 대한 정답은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발음은 말하는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듣는 입장에서도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부하고'가 많은 경우에서 [공부허구], [공부호구] 등으로도 들리는데 그저 잘못된 발음이라 일축하지 말고 청자의 입장에서도 그 발음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 사전은 통일 시대를 대비한 사전이 되어야 한다. 국토의 분단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남북한의 언어가 이질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 발음과 형태, 문법과 의미에서 한민족의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현실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는 민족어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남한의 언어 정책을 잣대로 삼아 북한의 언어 현실을 마름질하는 데 있다고도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된다면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리라고 본다. 두 개가 하나로 되기 위한 첫 단계는 다른 하나의 존재를 인식해 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존재의 인식은 상대방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언어에는 그 언어 사용자의 생활이 반영된다. 언어가 이질화되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해 삶이 이질화되었다는 말이다. 남한의 사전 사용자들이 통일 시대를 살아갈 때 북한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국어대사전은 표제어와 뜻풀이에서 넉넉하고 포용력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국어 사전은 한자를 찾아본다든가 맞춤법을 알아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사전의 이런 주된 구실은 컴퓨터의 문서 작성기가 이젠 대신 해 주게 되었으므로 없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전은, 그 형태가 종이 사전이 되었든 컴퓨터에 수록된 사전이 되었든, 더 많은 기능이 요구되리라 생각된다. 그 중의 하나가 동사나 형용사 등 용언과 관련된 조사의 사용에 관한 문법적 정보를 주는 일이다. 국어연구원의 집필지침은 이에 대한 대폭적인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예를 들면, 동사 '가다'가 조사 '-에'나 '-로'뿐만 아니라 '-를'을 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용례와 함께 그리고 때로는 섬세한 의미 차이와 함께 기술될 터이므로 이런 사전은 글 쓰는 이에게,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사용하려는 이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종합국어대사전"은 한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인을 위한 요긴한 사전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국어 생활이 컴퓨터 시대 속에서 급변하고 있다. 이 종합 사전은 금세기 말의 우리 언어 문화를 총 집대성하는 최후의 종이 사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는 전자 사전의 기초를 놓아주는 양면성을 지닌 가교적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이 사전은 또한 각 시대의 귀중한 고전과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한민족 모두의 실제 언어 생활을 총망라해 주는 다양한 언어 자료와 이를 체계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첨단적인 언어정보이론, 이 둘이 기초가 되어 필요한 만큼의 국어 정보를 쉽고도 즐겁게 얻어낼 수 있는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구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만든 집필 지침을 읽은 후 쓴 것이다. 처음에 글을 쓸 때에는 사전의 집필 지침을 받지 못하였을 때였다. 집필 지침을 읽고 난 후에 제안하고 싶었던 의견이 대부분 그 지침서에 들어 있음을 보고 나서 머리 속에 떠 오른 생각은 다음 한마디였다. 집필 계획대로 편찬이 성공리에 추진되도록 사전 편찬에 대한 조예와 관심이 깊은 분들이 자기의 재능과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셔야 한다는 말이다. 기술과 정보의 개방! 이것만이 불확실성 시대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생존의 지혜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는 곧 나의 것이라 생각되는 모든 것을 남과 나눌 때에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일 것이다.